

[보도자료]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택배기사 맞춤형 건강관리로 “10명 중 9명 건강 지표 개선” 온열 질환예방 캠페인도 지속

2026. 6. 16.



김경연 KMI 직업환경의학센터장이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2 캠프를 방문해 위탁배송업체 소속 배송기사들에게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맞춤형 건강관리에 의료진이 현장 찾아 건강 상담까지 CLS, 영업점 소속 배송기사 건강까지 챙겨
- 숫자로 입증된 ‘맞춤형 건강관리’ 효과, 업계 최초 맞춤형 건강관리로 참여자 86.7% 건강 지표 개선
- 온열질환 예방위해 전문 의료진 현장 찾아 개인 건강 상태별 상담 등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진행

2026. 06. 16. 서울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업계 최초로 검진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탁배송업체 소속 배송기사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9명은 업무수행 건강 지표가 개선됐다고 16일 밝혔다.

CLS와 위탁배송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전국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 위탁배송업체 소속 배송기사(퀵플렉서)를 대상으로 종합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퀵플렉서-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CLS는 국내 최대 건강검진센터를 보유한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와 업무협약을 통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건강관리 전문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CLS가 관련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

전문 의료진들이 1대1 건강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 목표를 설정해 영양, 식이 교육, 스트레칭 등 운동, 금연, 절주, 수면 교육을 진행하고 미션 제시와 건강 퀴즈 형식 등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진행했다.



홍용준 CLS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2캠프 진행된 캠페인에 참여한 위탁배송업체 소속 배송기사들에게 이온 음료, 아이스넥, 식염포도당, 온열질환 예방 수칙 카드 등이 담긴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KMI 관계자는 “전문 의료진들이 콕플렉서를 위해 마련된 건강개선 프로그램의 개별 상담 등을 통해 8주간 식습관 개선 교육, 회복 운동 프로그램 교육, 수면교육, 절주금 연 교육 등을 시행한 결과, 이상지질혈증(72.7%), 혈압(63.6%), 비만(62.5%), 당뇨(60%) 등 만성질환 지표가 개선됐다”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건강 지표는 86.7%나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CLS는 때 이른 더위에 대비하기 위해 찾아가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KMI 의료진은 지난 4일에 이어 지난 11일 남양주2 캠프를 방문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측정 및 문진결과 등을 기반으로 건강상태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에 대해 상담했다.

지난 11일 남양주2 캠프를 방문한 KMI 김경연 직업환경의학센터장은 “콕플렉서 케어를 통해 건강이 개선된 것은 전문 의료진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개인 위험 요인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효과적이었다”며 “온열질환 예방도 개인 건강 상태를 고려한 관리가 중요해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홍용준 CLS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2캠프의 차폐식 대형 냉방 구역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홍용준 CLS 대표이사는 캠페인에 참여한 위탁배송업체 소속 배송기사들에게 이온음료, 아이스넥, 식염포도당, 온열질환 예방 수칙 카드 등이 담긴 온열질환 예방키트를 제공하고 ‘차폐식 대형 냉방 구역’을 점검했다.

이날 외부 온도는 최고 28도였지만 차폐식 대형 냉방 구역은 20도 이하를 유지했다. CLS는 물류 작업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

가 주로 이뤄지는 작업 구역에 '냉기 유출 방지 커튼' 및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차폐식 대형 냉방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부부 퀵플렉서인 RK그룹 소속 임영진 퀵플렉서는 "쿠팡 소속도 아닌데 현장까지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건강 상담까지 해주는 것은 처음 봤다"며 "아내와 함께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도 예약했다"고 말했다.

임씨와 부부인 박수빈 퀵플렉서는 "현장에서 건강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간단한 설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건강 상태에 맞는 주의 사항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셨다"며 "평소에 병원을 잘 안가서 건강을 잘 못챙겼는데 현장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CLS 관계자는 "CLS와 각 위탁배송업체들은 배송기사들의 건강관리에 보다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전액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배송기사들의 건강상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위탁배송업체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